

연구논문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Multi-Cultural Society and Social Distance for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이명진^{*} · 최유정^{**} · 최셋별^{***}

Myoung-Jin Lee · Yu Jung Choi · SetByol Choi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가치관 변화를 위한 출발점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온 보가더스 척도는 ‘국민’과 ‘결혼을 통한 친족관계’에 대해 유독 배타성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정조절이론의 평가성과 권력성 그리고 활동성을 기준으로 각 출신지별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인이 세 차원 모두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일본인은 평가성은 낮고 권력성과 활동성이 높았다. 조선족과 새터민은 평가성은 높으나 나머지 점수가 낮다. 서아시아인은 세 차원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평가성이 모든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변수였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권력성의 평가가, 중국인과 서아시아인에 대해서는 활동성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미국인에 대해서는 여성이, 새터민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적었다.

주제어: 다문화, 외국인, 사회적 거리, 보가더스 척도, 감정조절이론

This study defines the substance and multi-dimension of emotional reactions which Koreans have toward foreigners to find the starting point of change in values which is an inevitable task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Bogardus scale which has been used to measure the social distance toward the minority race is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국연구재단-2009-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토대연구)-KRF-2009-322-B00012)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이명진.
E-mail: leemj@korea.ac.kr

^{***} 이화여자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found to have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closed attitude of Koreans toward 'nation' and 'kinship through marriage'. To supplement such limitations, exploration on attitudes toward foreigners from different native places is performed based on the 'evaluation', 'power' and 'activity' dimensions of the Affective Control Theory. As a result, Americans are highly evaluated in all three dimensions while Japanese are evaluated low in the 'evaluation' dimension and high in the 'power' and 'activity' dimensions. North Korean defectors and ethnic Koreans from China (the Chosun race) are high in evaluation but low in other dimensions. West Asians are evaluated low in all three dimensions. By comprehending the influencing factors and the relative influence of social distance, it proves that the 'evaluation' dimension is the common denominator in all groups while 'power' dimension toward Japanese and 'activity' dimensions toward Chinese and West Asians influence social distance. All foreigners excluding Americans receive closer social distance when having higher education level. Moreover, American women and older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 closer social distance.

Key words : Multi-culture, Foreigner, Social Distance, Bogardus Scale, Affective Control Theory

I. 서론

근대가 단일성과 합일의 질서가 강조된 시기였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급진적으로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시공간적 장(場)이다. 세계화의 격동적 흐름은 선진국들의 강한 보호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¹⁾ 전세계적 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대규모 인구 유동을 야기했고, 내부적인 문화적 일치성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거부할 수 없는 토대로 작용해 왔다. 다문화 사회를 서술적 의미로서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인종, 종교, 문화의 유입으로 동질적이었던 국민국가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오늘날 모든 국민국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동일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남국 2007).

1) 미국의 경우 새이민법을 제정하여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강화했고, 2000년대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불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로 일관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해 ‘시민권 취득시험’을 치르게 한 독일, 이민자격을 고숙련 노동력으로 국한시킨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엄한진 2007; 43-44).

전지구촌을 휩쓴 세계화의 물결은 단일민족 전통이 강조되던 한국 사회에도 총체적인 변화를 촉발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려 및 실질적인 노동력의 부족, 결혼 시장에서의 남녀불균형 등과 맞물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화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거대한 전지구적 구성의 재편과정에서 초래된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숫자상으로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백만명을 훌쩍 넘어 이미 남한 인구의 2%를 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990년 49,507명, 2000년 49,324명, 2008년 1,158,86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상태로서의 다문화’ 이외에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환경과 국가구조를 추구하는 ‘다문화주의의 정책 입장’을 슬로건처럼 받아들여 이를 적극 지향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급격한 인구구성비의 변화와 함께 정부가 표방했던 다문화주의의 강력한 의지는 우리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한국 사회 전체에 던져 주었다.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많은 정책과제 및 연구들은 실제로 한국의 다인종, 다민족화 현상이 선진국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따라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사회 문제나 쟁점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다각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곽준혁 2007; 엄한진 2006; 윤인진 2008; 이혜경 2007). 그리고 이같은 논의들의 결론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단일 혈통주의와 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하는 ‘인식 변화’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지나친 순혈주의나 온정적·시혜적인 태도로 경도되지 않고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문화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그 해결방안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어떤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며, 인식 변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무엇을 근거로 시작해야 할 것인가?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건전한 기초를 닦는 작업이 될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자각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외국인이나 타민족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을 이해할 때만이 그것을 기초로 변화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내용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은 보가더스 척도(Borgadus scale)를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척도는 외국인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단계별 문항들을 통해 대상과의 거리감을 측정하기 때문에 감정을 호(好), 불호(不好)의 연속선상 어느 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게 되고, 그 결과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주로 감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타인에 대한 인식이 지닌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를 배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가더스 척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본질에 한층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감정조절이론(ACT: Affect Control Theory)을 이용하여 출신지역별 외국인들에 대한 반응의 실체를 규명하고, 일면적으로 측정되어 온 사회적 거리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해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한국적 특수성 또한 연구의 주된 관심사로 다루어졌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행 연구

한국의 ‘다문화 담론’과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핵심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존재한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가 가속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전자의 경우 허가된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손님’으로 간주되었던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한국사회에서 영구히 뿌리를 내릴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과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하였다.

한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 상이한 노선을 견지해 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차별배제모형’의 색채가 강했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그 실제내용상으로는 문화적 동화정책이 주를 이뤘을지라도²⁾ 표면적이거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공

2) 주로 한국어, 요리, 예절교육, 한국문화 탐방, 폭력, 범죄에 대한 지원, 법률적 복지적 지원 등의 일방적 사업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존'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 전략이 주창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관련 담론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그녀들의 실제 경험과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기반한 체계적인 준비나 경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전개된 다문화 담론과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었다(김희정 2007; 윤인진 2008).

기존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논의(김민정 외 2006;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한건수 2006)에서부터 탈법적인 국제결혼과 당사자 보호, 적응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가정폭력,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들을 토대로 실태처럼 얹혀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한국의 현 주소 및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이혜경 2007). 이 때 가장 빈번히 언급된 비판의 지점은 한국의 이민정책이 다문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족주의적으로 동화주의적 패러다임에 강하게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같은 소위 '저발전 상태'에 대한 자기반성은 빠지지 않는 화두였다.

그런데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주의적 갈등 등 한국적 특수성인 것처럼 간주되어온 일련의 반응들은 실상 한국 전통사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근대 국민국가나 세계화시대 이민의 보편적인 속성이라 할 것이다. 1민족 1국가 원칙과 강력한 중앙권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대 서구의 민족국가(nation-state) 원리는 국민이 아닌 타자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으로 작용하기 쉬운 까닭이다(엄한진 2006; 2007). 물론 외형적인 면에서 민족국가의 이념형에 매우 가까운 상태로 유지되어 온 한국사회의 경우 이러한 민족국가의 전형적 병폐들이, 저발전 국가의 여성들에 대해 인신매매적으로 자행되는 국제결혼의 횡행,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 등의 현실과 맞물려 좀더 극단적이고 편향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자체를 후진성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일면 정도로 치부하기보다 그 실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나 다문화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이 민족국가의 보편적 특성이라 해도 그 내적 본질은 분명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띠 것이고, 대상 외국인의 출신 국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도 다문화주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출신지별 외국인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실체를 밝히려 한다.

2.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 보가더스 척도를 활용한 사회적 거리 연구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거리’ 개념이다. 이 개념은 미국 사회학자인 파크(Park)가 짐멜(Gimmel)의 논의로부터 도출해 낸 것으로, 그 이면에는 물리적 공간상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처럼 측정 가능한 어떠한 사회적 ‘거리’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사회적 거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친밀감(intimacy)의 정도이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실증 연구에 최초 적용한 보가더스(1933)는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Laumann 1965). 보가더스 척도는 이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해 결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의 7가지 항목에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그 자발성(willingness)을 묻는 방식으로 응답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Babbie 2006). 이 때, 사용된 7개 항목은 각각 위계적인 차이와 순서를 갖는 거트만 척도(Guttman scale)로 구성되어, 상위 항목에 찬성한다면 그 하위 항목들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arrillo & Donoghue 2005).

결혼을 통해 가까운 친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항목부터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항목까지를 1부터 7점까지 놓고, 문항 간의 위계적이고 단계적인 관계와 각 문항의 누적성을 전제하는 보가더스 척도는 오랜 기간 소수민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개념을 활용하여 소수 인종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려 했던 연구들이 눈에 띈다(김상학 2002; 김진희 2007; 김혜숙 2007; 양계민 2009; 인태정 2009; 황미애 2009).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개 향후 다문화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김상학 2002; 양계민 2009; 인태정 2009; 황미애 2009), 어느 정도 타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독특한 가치와 성향이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가치관 함양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 교육’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접근방식이었음에는 틀림없으나, 보가더스 척도를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한편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동질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가더스 척도가 과연 한국인들의 반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나 그 요소들 간의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보가더스 척도의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감정의 의미를 심도 있게 밝혀낼 수 있는 보완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한다.

2) 감정조절이론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의 실체

사회적 거리감의 실체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에 관해 심층 분석을 시도할 때 유용한 시각과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감정조절이론’이다. 감정조절이론은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사회정체성에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악할 때 각기 개별적이고 독특한 개체가 아닌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대상자의 사회적 역할을 정형화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최섯별 외 2003).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이 자신과 타자를 사회정체성을 통해 판단할 때, 이 사회정체성이 특정 집단 또는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에게 일련의 사회적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다(Heise 2001). 감정조절이론은 사회정체성에 범문화적으로 내재하는 직관적·주관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어의차이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 의해 그 감정적 의미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모든 문화와 사회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상징들의 감정적 의미를 구별하는 인간의 공통된 인식들이자 사회정체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 지표는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이다(Heise 2001; Mackinnon 1994; Smith-Lovin 1987). 이 중 평가성(evaluation)은 사물에 대한 긍정, 부정 같은 판단적 감정으로 그 기준은 도덕성, 미적 감각, 기능, 쾌락, 또는 다른 표준의 판단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느낌과 연관된다. 권력성(potency)은 물질적인 크기나 세기, 강제성, 사회적인 권력이나 중요성 등에 대한 평가로 실제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활동성(activity)은 빠르고 느림, 연령, 민감성, 실제 자발성 등에 대한 판단의 측면이다(Heise 2001).

이러한 사회정체성의 세 차원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감정의 실체를 논의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하다.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 또한 그들을 하나의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닌 유동적인 실체인 만큼, 지속적으로 구성, 재구성되는 이민집단에 대한 인식과 그 감정적인 측면들을 밝혀낼 때,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과 개선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정체성에 대한 폐쇄적인 정의를 극복하는 것이 다문화사회의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도, 사회정체성의 차원들을 통해 외국인들에 대한 반응을 해부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가더스 척도와 감정조절이론의 세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타민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이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보려 한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2007년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주제로 한 「한국인의 의식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추출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비례할당하는 다단층화 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의거했다. 표본추출은 먼저 2006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만 19세 이상 인구를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정리한 후, 전국 16개 시·도별로 인구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을 실시했고, 최종 조사지점에서 성과 연령 할당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되 1대 1 가구방문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평소 의견을 묻는 문항들을 분석에 투입하되,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서아시아인, 몽골인 등 한국사회에서 대체로 빈번하게 마주치는 외국인들과 조선족과 새터민과 같이 한민족이지만 국적상 외국인으로 구분되는 이들을 포함한 총 8개 집단에 대한 의견을 비교·분석하였다.³⁾ 설문내용 중에서는 보가더스 척도의 각 항목에 대한 찬성 응답과 ‘좋은’, ‘영향력 있는’, ‘능동적인’의 세 항목으로 측정된 감정조절이론의 3가지 차원—평가성, 권력성, 활동성—과 관련된 응답이 주된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3) 「한국인의 의식조사」는 이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태도와 가치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외국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결과적으로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 등 보다 다양한 지역민이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IV.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 보가더스 척도를 통해 본 사회적 거리감

1) 외국인 집단별 사회적 거리감

먼저, 외국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통적인 보가더스 척도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각 외국인 집단에 대한 거리감을 계산해 보았다. Kelg & Yamamoto(1998)와 Parrillo & Donoghue(2005)가 사용한 보가더스 척도항목과 사회적 거리 계산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녀의 배우자, 친구, 이웃, 직장동료, 국민, 방문, 입국금지 항목에 대해 각각 1점부터 7점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이때 응답자의 답변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을 해당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 점수로 간주하였다(Parrillo & Donoghue 2005).

평균을 보면, 미국인(2.08)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깝고, 새터민(2.28), 조선족(2.48) 순서로 가까운 대상으로 여겨졌다. 반면 가장 거리감을 느끼는 대상은 서아시아인(2.90)과 몽골인(2.82)이다. 미국인의 경우 표준편차가 1.33으로 가장 낮고, 조선족(1.57), 새터민(1.64)이 그 다음이다.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이 세 집단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차이가 큰 대상은 서아시아인(1.83)과 몽골인(1.79)이다.⁴⁾

〈표 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보가더스 척도

(단위: 명)

	사례수	평균	순위	표준편차
조선족	1,202	2.48	3	1.57
중국인	1,202	2.78	6	1.76
일본인	1,201	2.52	4	1.71
동남아시아인	1,198	2.77	5	1.72
새터민	1,202	2.28	2	1.64
미국인	1,202	2.08	1	1.33
서아시아인	1,201	2.90	8	1.83
몽골인	1,201	2.82	7	1.79

* 전체 사례수: 1,203

4) 두 집단별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가더스 척도 각 항목에 대한 찬성 응답자 수를 살펴볼 때도 미국인, 새터민, 조선족에 대한 선호도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 방문’은 가장 찬성 응답이 많은 항목이었는데, 출신집단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가장 찬성수가 많은 대상은 역시 미국인이다. ‘국민’에 대해서는 새터민에 대한 찬성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동일한 민족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은 미국인과 조선족 순이다. ‘동료’와 ‘이웃’, ‘친구’ 항목에서도 미국인에 대한 찬성이 뚜렷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달라지는 것이 ‘결혼’ 관련 항목이다. 자식의,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인에 대한 찬성이 현격히 줄어드는 반면 ‘새터민’에 대한 찬성은 타외국인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내집단의 일원으로는 ‘민족’이나 ‘인종’, ‘언어’에 근거하여 새터민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미국인과 일본인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선진국 출신에 대한 선호가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보가더스 척도에서 가까운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갈수록 찬성 응답이 줄어드나 ‘입국금지’와 ‘국민’은 예외이다. ‘입국금지’는 원래 가장 먼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는데, 찬성 응답자 수상으로 ‘방문’ 다음의 찬성률을 보이고, 같은 민족인 새터민에 대한 입국금지 찬성 의견이 그 중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국민’에 대한 찬성응답이 ‘결혼’ 관련 항목에 이어 낮은 수치인 것도 특기할 만하다(〈표 2〉 참조).

〈표 2〉 보가더스 척도 각 항목에 대한 찬성 응답자 수

(단위: 명)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새터민	미국인	서아시아인	몽골인
입국금지	1,146	1,132	1,134	1,153	1,125	1,169	1,160	1,148
방문	1160	1151	1150	1162	1139	1179	1160	1163
국민	740	564	617	592	956	787	587	638
동료	974	885	956	892	1001	1053	875	896
이웃	995	899	932	903	994	1062	862	896
친구	845	771	838	794	915	985	779	792
자식의 배우자	293	233	340	199	453	415	201	217
배우자	267	196	302	176	413	347	175	193

* 전체 사례수: 1,203

2) 한국적 맥락과 사회적 거리감

이제 보가더스 척도에서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제되었던 각각의 항목들이 과연 실제 같은 차원의, 그러나 정도가 다른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인지, 이 내용과 순서가 한국적 상황에서도 적절히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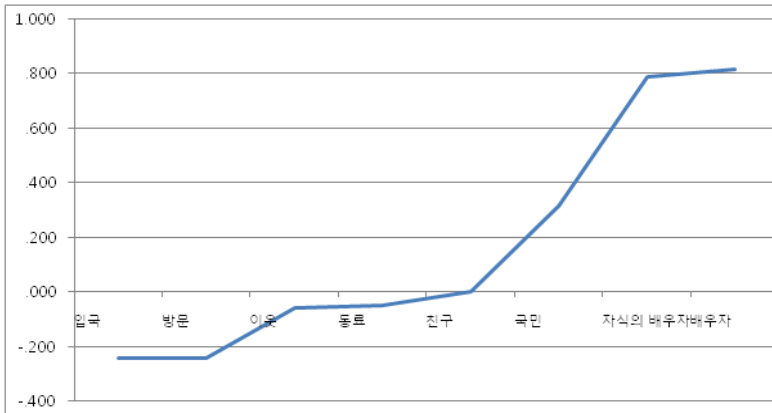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의 내적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했다. 대응분석은 분할표(contingency table)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의 공간상에 지도로 표시하여 그 대응관계를 탐구하는 탐색적 분석법이다. 이 기법은 복잡한 자료를 한 두 개의 축(axis)상에서 시각화하여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이명진 2005).⁵⁾

대응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응답자들의 반응을 요약할 수 있는 벡터값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은 각 평가대상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분할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원을 추출하고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먼저 각 항목의 배열방식은 응답자들이 외국인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극단적인 항목 혹은 중간 항목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입국금지, 방문, 국민, 이웃, 동료, 친구, 결혼으로 이어지는 보가더스 척도의 배열순서상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국민’의 항목이다. 보가더스 척도에서 ‘국민’은 ‘이웃’ 다음으로 먼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나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국민’은 ‘친구’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 이민이 보편화된 서구에 비해 단일민족 국가의 이념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해 온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이라는 내집단이 갖는 의미와 폐쇄성이 유독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보가더스 척도의 항목들 간 순서의 상이함 이외에, 그 내적인 선형성 또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1>에서 제시된 각 벡터값을 연결한 선은 각 항목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평가되는가를 보여 준다. 여기에 배열되어 있는 각 항목들이 선형적, 위계적 모형이 아닌 ‘입국금지/방문’, ‘동료/이웃/친구’,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군집으로 구분되고 있음은 흥미롭다.

5) 분석자료로는 <표 2>에 제시된 찬성 응답자 수가 사용되었고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대응분석이 주로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 혹은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를 다루기 때문이다. 물론 유사한 기법이 있지만, 관계의 존재 여부만 보여 주거나 표본크기에 좌우되기가 쉽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 대응분석이 기술적인(descriptive) 통계라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감처럼 구체적인 원인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 분석의 출발점은 복잡한 자료를 요약하고, 평이화하는 것이다. 대응분석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평가항목 찬성 여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벡터값

보가더스 척도에서 가장 사회적 거리가 먼 항목으로 간주되었던 ‘입국금지’는 한국인들에게는 ‘방문’과 거의 비슷한 사회적 거리를 갖는다. 일시적 ‘방문’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동료’ 사이에는 격차가 두드러지는 반면, 동료, 이웃, 친구 사이에는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동료와 이웃의 차이가 미비한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을 점차 생활전선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국민’과 이전 항목들 사이에는 비교적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역시 한국에서 국민이 갖는 특별하고도 견고한 내집단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론된다. ‘국민’과 ‘자식의 배우자’, ‘배우자’ 간의 격차는 더욱 크다. 한국인들에게 친족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특별한 셈이다.

2. 외국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실체

1)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감정적 의미

이렇게 보가더스 척도가 한국사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제 관점을 바꾸어 사회적 거리감을 단선적인 구성물이 아닌 다중적 요소들의 복합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정조절이론에서 주된 차원으로 간주하는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출신지별 외국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즉각적인 호불호나 선악의 판단을 반영하는 평가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미국인이고 조선족과 새터민이 그 뒤를 따른다. 미국인의 독보적인 위상과 함께 같은 민족인 조선족과 새터민에 대한 선호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면 중국인이 가장 낮은 평가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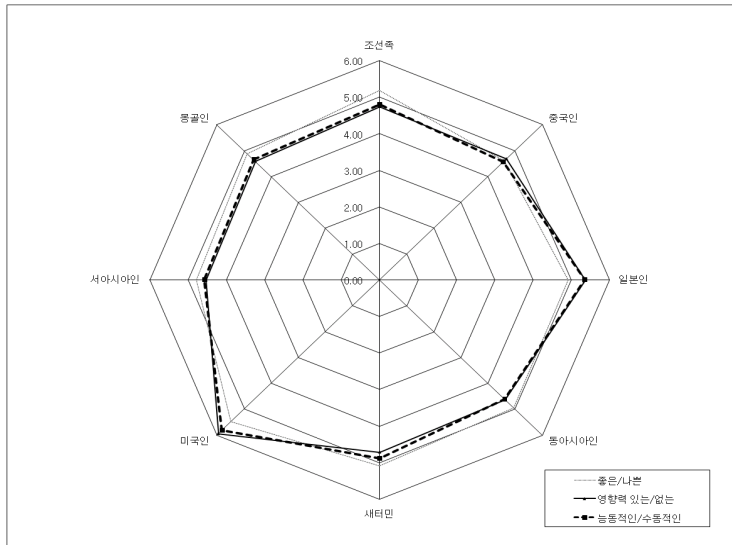
기록했으며, 다음은 서아시아인이다. 권력성에서는 미국인, 일본인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아시아인과 몽골인은 매우 낮게 평가됐다. 활동성은 권력성과 유사하게 미국인과 일본인이 가장 높은 평가를, 중국인과 서아시아인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권력성과 활동성 점수가 해당 국가가 선진국인지 여부에 상응함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 중 ‘권력성’은 각 출신지별 점수 분포가 한층 넓게 퍼진 형태를 보인다. 미국인 및 일본인과 나머지 집단들의 차이가 특히 크다. 여기서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지가 주로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사실과 인권문제나 피해사례 중심으로 이들의 문제를 공론화해온 매스컴의 태도 등이 결합되어 미국인과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이미지가 ‘무력한 희생자’로 정형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출신지의 경제적 위상이 곧바로 그 지역민에 대한 권력성 평가로 이어져 곧바로 그들의 사회 정체성을 구성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온정적, 시혜적 시각이 단순논리에 입각한 배타성만큼이나 다양성에 근거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들의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제고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 대상에 대해 표준편차를 확인해 본 결과 응답의 일치도는 세 차원이 대체로 유사하다. 평가성과 권력성, 활동성 모두에서 서아시아인에 대한 평가가 가장 일치했고, 일본인에 대한 편차가 가장 컸다. 활동성의 경우 외국인집단별 표준편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동일하다. 일본인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는 식민지 경험과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세대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아시아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세 차원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한편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확산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표 3〉 각 차원별 평가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
조선족	5.19 (1.52)	4.73 (1.56)	4.79 (1.58)
중국인	4.60 (1.49)	4.67 (1.58)	4.55 (1.56)
일본인	4.90 (1.72)	5.37 (1.72)	5.35 (1.65)
동남아시아인	4.95 (1.40)	4.62 (1.45)	4.62 (1.46)
새터민	5.09 (1.54)	4.71 (1.59)	4.89 (1.55)
미국인	5.47 (1.56)	5.95 (1.65)	5.82 (1.57)
서아시아인	4.78 (1.29)	4.53 (1.37)	4.57 (1.35)
몽골인	4.88 (1.37)	4.59 (1.42)	4.65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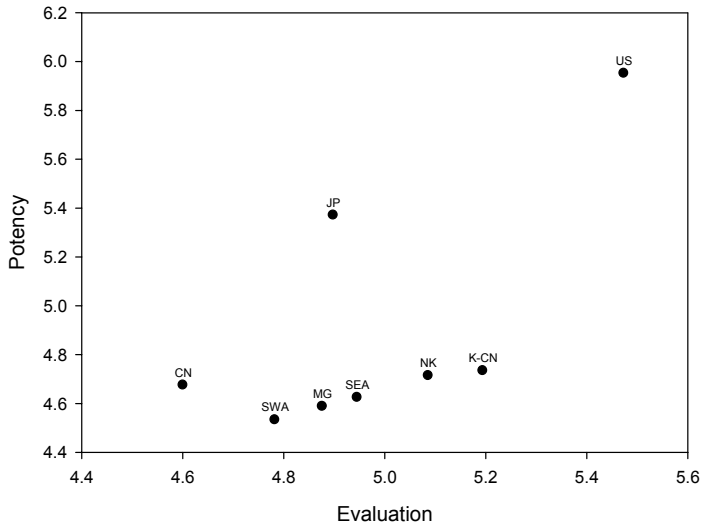
〈그림 2〉 각 차원별 평가점수: 평균값

각 차원별 점수를 종합적으로 시각화한 것이 〈그림 2〉이다. 먼저 미국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한·미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겠으나 미국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모든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이다. 일본인은 평가성에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권력성과 활동성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반대로 조선족과 새터민은 평가성은 높으나 권력성과 활동성 점수가 낮다. 같은 핏줄이라는 점에서 호감도는 높지만 경제력이 주로 반영되는 권력성과 활동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차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서아시아인과 몽골인이다. 해당 국가의 경제력은 물론 실제 접촉 정도나 문화적 요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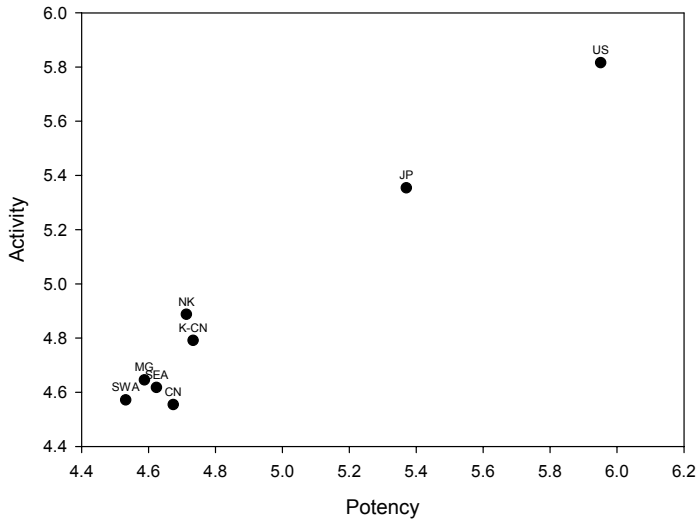
2)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의 차원별 비교

각 차원에 대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보다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각 외국인집단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세 차원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했다.

먼저 ‘평가성’과 ‘권력성’을 함께 제시한 〈그림 3〉를 보면 대상 집단들이 두 축을 이룬다. 한 축에는 둘 모두에서 유사한 평가를 받는 대상이, 다른 축에는 두 차원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대상들이 포진해 있다. 전자에는 두 차원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미국인과 둘다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서아시아인, 몽골인, 중국인이 속한다. 후자는 일본인, 조선족, 새터민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인은 영향력은 높으나 평가성이 낮고, 조선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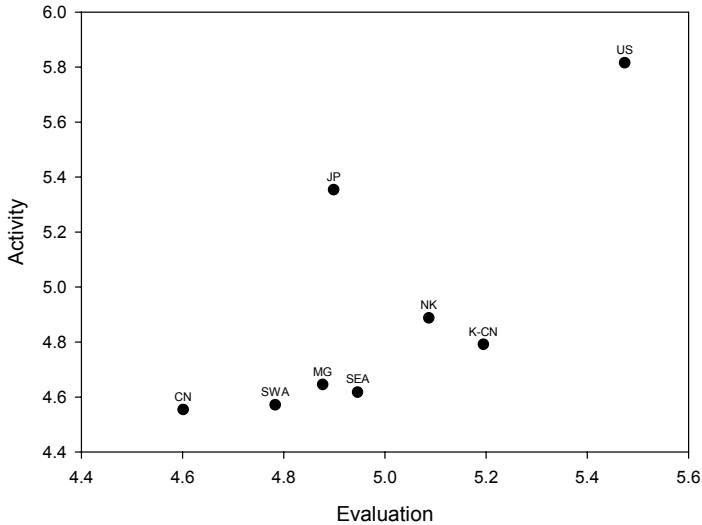


〈그림 3〉 평가성과 권력성 비교⁶⁾



〈그림 4〉 권력성과 활동성 비교

6) 조선족(K-CN); 중국인(CN); 일본인(JP); 동남아시아인(SEA); 새터민(NK); 미국인 (US); 서아시아인(SWA); 몽골인(MN)



〈그림 5〉 평가성과 활동성 비교

새터민은 평가성은 높지만 권력성이 낮다. 조선족과 새터민의 권력성 차이는 크지 않지만 평가성에서는 조선족이 새터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었다.

‘권력성’과 ‘활동성’의 기준으로 보면 출신지별 집단들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그림 4〉 참조). 이는 권력성과 활동성에 대한 평가가 거의 비례함을 의미한다. 새터민과 조선족의 경우는 다소 예외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대상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인은 중국사회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비해 두 차원 모두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성과 활동성의 비교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5〉은 평가성과 권력성을 비교한 〈그림 3〉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분포도를 나타낸다. 이는 응답자들이 활동성과 권력성을 거의 동일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케 한다. 미국인이 평가성과 활동성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중국, 서아시아인, 몽골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인은 평가성은 다소 떨어지나 활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선족과 새터민은 평가성은 높은 반면 활동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됐다. 다만 새터민이 조선족에 비해 다소 능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북한 사회의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이미지가 새터민에 투사된 결과로 보인다.

3.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외국인에 대한 주관적 반응의 요소인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이 기타 객관적인 지표인 사회·경제학적 변수들을 포함했을 때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점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이들 간의 인과성을 검증하였다. 일단 모든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되었으므로, 각 외국인집단별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각 변인의 인과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4〉 참조).

먼저 미국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위의 변인들의 설명력이 6.1%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인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성별($p<.05$ 수준)’과 ‘평가성($p<.001$ 수준)’ 두 가지였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미국인에 대해 더 가깝게 느꼈으며 평가성이 높을수록 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했다. 성별이 사회적 거리감에 효과를 미치는 것은 미국인에 대해서가 유일했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교육’과 ‘평가성’, ‘권력성’이 영향을 주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했고($p<.01$ 수준), 평가성($p<.001$ 수준)과 권력성($p<.01$)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일수록 일본인을 가까운 대상으로 느꼈다. 일본인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13.1%이다.

〈표 4〉 사회적 거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미국인	일본인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새터민	서아시아인	몽골인
성 별	-0.059*	-0.026	0.030	-0.026	-0.046	1.337	-0.009	0.037
연 령	0.053	0.062	-0.009	-0.016	-0.009	-0.066*	0.042	0.001
교 육	-0.054	-0.088**	-0.121***	-0.103**	-0.101**	-0.087**	-0.066*	-0.087**
소 득	0.006	0.004	-0.052	0.010	0.035	-0.089	0.009	0.020
평가성	-0.172***	-0.221***	0.303***	-0.195***	-0.175***	-0.176***	-0.192***	-0.159**
권력성	-0.039	-0.158**	-0.050	-0.023	0.034	-1.005	0.030	-0.004
활동성	-0.044	0.025	-0.037	-0.159**	-0.105*	-1.764	-0.057	-0.051
R^2	0.061	0.131	0.147	0.124	0.056	0.094	0.047	0.045
F	11.415***	25.124***	28.709***	23.610***	10.433***	17.582***	8.831***	8.609***

중국인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교육($p<.01$)’, ‘평가성($p<.001$)’, ‘활동성($p<.01$)’ 세 가지이다. 활동성이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평가성과 활동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중국인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12.4%였다. 교육과 평가성, 활동성의 영향력이 동시에 검증된 것은 동남아시아인도 마찬가지이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5.6%으로 다소 낮으나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은 중국인과 같다. 이는 다소 경직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인들에 대한 이미지와 동남아시아인들이 느리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이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선족과 서아시아인, 몽골인의 경우는 모두 ‘교육’과 ‘평가성’ 두 변수만이 유의미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일관되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덜 느끼고,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평가성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했다.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 평가성 점수가 높아지면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양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14.7%, 서아시아인과 몽골인은 각각 4.7%, 4.5%이다.

새터민의 경우 ‘교육’과 ‘평가성’ 이외에도 ‘연령’의 효과가 눈에 띈다. 교육과 평가성의 효과는 여타의 외국인들과 유사하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p<.01$ 수준), 평가성 점수가 높을수록($p<.001$)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드는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나이대가 있을수록 북한에 대해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새터민에 대한 전체 회귀식의 설명력은 9.4%이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라는 큰 흐름에 직면하여 한국사회의 도전 과제이자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치관 변화가 현재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반응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기초로 할 때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에 대한 감성적 평가의 실체와 의미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보가더스 척도를 활용하여 출신지별 외국인 집단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한국인들은 미국인에 대해 가장 가깝게 느끼고 그 다음이 새터민, 조선족의 순이다. 서아시아인에 대한 거리감이 가장 강하고 몽골인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인, 새터민, 조선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 통일되어 있으나 서아시아인과 몽골인에 대한 평가는 편차가 큰 편이다. 보가더스 척도 각 항목에서도 미국인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다. 다만 ‘국민’과 ‘결혼’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찬성이 많아 이 두 가지 내집단의식이 ‘민족’적 동질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응분석 결과를 통해 보가더스 척도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보가더스 척도에서 전제되고 있는 항목 간 위계성이 한국사회에서는 성립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경우에는 ‘친구’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사회적 거리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항목들 간의 선형적인 관계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 ‘입국 금지’와 ‘방문’은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를 나타냈고, 이보다 좀 더 가까운 사회적 거리를 보여주는 ‘동료, 이웃, 친구’의 항목 간 차이도 크지 않다. 반면, ‘국민’과 ‘결혼’의 배타적인 의미와 상대적인 중요성은 보가더스 척도에서 가정된 것보다 한층 강하다.

셋째, 감정조절이론을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반응의 실체를 파악해 보면 평가성 차원에서는 미국인, 조선족, 새터민 순으로 높게 인식됐다. 미국인은 권력성과 활동성에서도 높게 평가된 반면 일본인은 평가성은 낮고 권력성과 활동성 점수가 높다. 조선족과 새터민은 평가성은 높지만 나머지 점수가 낮다. 서아시아인은 평가성과 권력성, 활동성 모두에서 일관되게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중국인은 평가성과 활동성에서, 몽골인은 권력성 면에서 저평가되었다. 세 차원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권력성과 활동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차이가 없고, 대체로 선진국 출신에 대해 이 두 차원에서 높은 평가가 내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평가성이 모든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권력성에 대한 평가가,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경우에는 활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거리감을 덜 느꼈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여성이, 새터민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몇가지 추가적인 논의들을 필요로 한다.

우선 한국에서 ‘국민’과 ‘가족’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단일 민족’에 따른 배타성은 적어도 동료, 이웃, 친구의 관계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세 항목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전통적 보가더스 척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항목

간 차이가 적어서, 실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민족주의적인 폐쇄성에 경도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국민’ 혹은 ‘가족’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누구를 국민으로, 또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결혼상대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한국인의 관대함은 급속도로 약화되어 버린다.

국민이 친구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회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국민과 민족을 동일어로 이해해 온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라는 다소 건조하고 객관적인 단어에 비해 민족은 보다 감성적이고 공동체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아직까지도 이 두 단어의 결합은 우리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곤 한다. 1민족 1국가 원칙에 입각한 근대 민족국가의 원리에 충실했던 과거와 단일민족국가라는 오랜 자부심은 여전히 국가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전제하고 외국인들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하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가족’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늘 ‘마지막 보루’로서 기대되는 가족의 위상 이외에도 실제 호주제도에 기반하여 개인이 아닌 가족을 통치 대상으로 삼았던 한국의 국가지배모델(임경택 2004)은 국가와 가족의 두 범주를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게 했고, 그 결과 한국인의 정체성이 이 복합적인 총체에 뿌리를 둔 더욱 배타적인 형태로 고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인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확인되듯이 백인 문화는 동경하면서도 그 이외의 문화는 폄하하는 오리엔탈리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조선족이나 새터민이 선호되는 현실은 바로 이 두 범주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적 사고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중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국가와 가족 개념이 정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주로 다분히 추상적인 ‘평가성’에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출신지와 무관하게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객관적 판단에 의거하기보다는 주로 피상적인 호불호와 선악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많다는 사실은, 낙관적으로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문화적 노출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한민족이라는 강한 동질의식이 곧바로 ‘다른 것=나쁜 것’이라는 사고로 연결되어 다른 것을 무조건 타자화하는 비관용적 태도로 귀결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국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각 집단별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출신지의 발전 수준이나 한국사회에 투영된 위상에 좌우되는 권력성과 활동

성 평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화적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저개발국가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주로 저임금정책으로 유입된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반응이 형성되어온 결과인 동시에, 그 정형화된 이미지가 다시금 이들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출신지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촉의 기회가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 결과 또한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김진희 2007)와 학력이 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수 집단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연구결과(김혜숙 2007), 그리고 교육의 특정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윤인진·송영호 2007)가 모두 공존하는 만큼,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교육이 대다수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실질적으로 고학력자들이 외국인들을 특별히 경쟁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관대함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이국적인 것이 대한 취향이나 소수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특징지워지는 중간계급적 성향이 고학력층에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냉전 이후 소수자와 이민자들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좌파적 성향이 점차 중간계급과 고학력층에 체화되어 간 유럽의 사례를 떠올릴 때(엄한진 2007에서 재인용), 학력이 계층적 구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한국사회에서 ‘다름’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중산층 이상의 계층 특성의 하나로 표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고학력층의 태도가 경쟁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봐주기식’ 관대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그들의 진보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고찰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가,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외국인들과 경쟁하는 저학력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이방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존해야 할 동료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사하게 새터민의 경우에도 낮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 교육과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히 특정 집단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강하게 느끼는 대상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 가치관 변화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라는 기표는 그 자체가 민족과 국가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롭고도 진지한 분석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과 ‘공유’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다문화의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다문화라는 다분히 감정적 구호만을 부르짖기보다 차분하게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다문화사회라는 ‘현실’을 넘어서 이를 ‘규범적 이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인식 변화를 위해 이 연구의 발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가치관 개선의 캠페인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는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 이민자의 적응과 삶: 한국, 대만, 베트남, 일본에서의 경험.” 《2006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자료집》.
- 곽준혁. 2007.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23-41.
- 김남국. 2007.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서평) 《경제와 사회》 80: 343-361.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76.
- 김상학. 2002.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5(1): 169-206.
- 김진희. 2007. “서울 시민의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연구.”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2: 1-32.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오경석 외). 한울: 58-79.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자료집》.
- 엄한진. 2007.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동북아시아 위원회 용역과제 07-7). 한국사회학회: 39-69.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윤인진 · 송영호. 2007.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57-868.
- 이명진. 2005. “대응분석.” 이재열 외.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혜경. 2007.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김혜순 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대위원회.
- 인태정. 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339-370.
- 임경택. 2004. “일본의 천황제와 촌락사회구성에 관한 사회민속학적 고찰.” 《일본사상》 6: 57-84.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최섯별 · 이명진 · 김재은. 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책성 연구 -감정조절이론(ACT)의 수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5): 1-30.
- 황미애. 2009.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들의 차별적 태도 연구.” 《시민교육연구》 41(3): 205-226.
- Babbie, E. R. 2006.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1 ed.): Wadsworth Publishing.
- Bogardus, E. S. 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Jan-Feb): 265-271.
- Heise, D. R. 2001. “Project Magellan: Collecting Cross-cultural Affective Meanings Via The Internet.” *Electric Journal of Sociology* 5(3). <http://www.sociology.org/content/vol1005.003/mag.html>.
- Kleg, M. and Yamamota, K. 1998. “As the World Turns: Ethno-racial Distances after 70 Years.” *Social Science Journal* 35: 183-190.
- Laumann, E. O. 1965.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 26-36.
- MacKinnon, N. J. 1994. *Symbolic Interactionism as Affect Control*. Albany: State University of NY Press.
- Parrillo, V. N. and Donoghue, C. 2005. “Updating the Bogardus Social Distance Studies: A New Nation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42: 257-271.
- Smith-Lovin, L. 1987. “Affect Control Theory: An Assessment.”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3: 171-192.